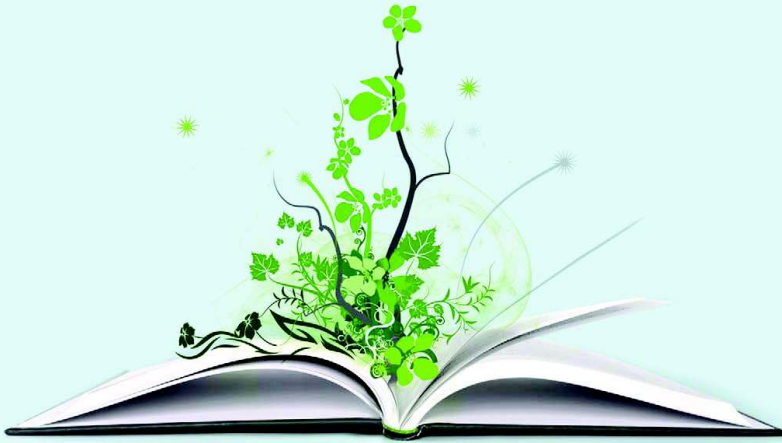


열정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며, 어떤 순간이 아니라 지속되는 과정을 뜻한다. 유전(oe bank)이 존재하지만 발견하기 전까지는 유전이 아니었던 것처럼 열정도 발견하기 전까지는 열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열정은 어떻게 발견하는가? 또한 한 번 발견한 열정의 그 뜨거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개인과 조직의 차원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정'과 '스토리'를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자.

인정과 스토리, 열정을 피우다



인정, 열정을 발견하는 계기

나는 초등학교생들로부터 팬레터를 종종 받는다. 작년에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쓴 <유엔에서 일하고 싶어요>라는 책 마지막 장에 '유엔은 □□다'라는 퀴즈를 낸 적이 있다. 기발한 답변을 참 많이 받았다. '유엔은 지구의 희망이다'라는 모범 답안에서부터 '유엔은 내가 서 있을 곳이다'라는 당돌한 답변까지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주연'이란 이름의 한 초등학교생이 보내온 답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초등학교생이 쓴 이메일치고는 글이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어서 칭찬을 해주었다.

"글 솜씨가 참 좋아요. 글을 잘 쓰는 것은 엄청난 재능이지요. 21세기에는 글쓰기가 각광을 받아요. 유엔에서도 글을 쓰는 게 업무의 대부분이랍니다. 파이팅!"

그렇게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던 이 초등학교생과의 스토리는 얼마 전 이 친구의 답 메일로 계속 이어졌다.



글쓴이 김정태는 인문학적 시각으로 인간의 잠재력 개발과 조직의 거버넌스적 운동을 실천하는 휴먼벤처캐피탈리스트이자 저술가. 스토리텔링을 통한 개인의 유일한 가치발견과 발전을 논한 베스트셀러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등 10권의 책을 쓰거나 번역했다. 유엔거버넌스센터 홍보팀장으로 일하면서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김준이 김정태는 인문학적 시각으로 인간의 잠재력 개발과 조직의 거버넌스적 운동을 실천하는 휴먼벤처캐피탈리스트이자 저술가. 스토리텔링을 통한 개인의 유일한 가치발견과 발전을 논한 베스트셀러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등 10권의 책을 쓰거나 번역했다. 유엔거버넌스센터 홍보팀장으로 일하면서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선생님,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어린이날 글짓기대회에 나갔었는데, 장려상을 받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제게 해주신 글 솜씨가 있다는 말이 희망과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나의 글쓰기 시작도 초등학교 시절, 담임선생님의 격려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학생들의 로망이었던 '5단 자동필통'을 내게 쥐어주셨던 선생님은 "정태야, 넌 글쓰기에 재능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나 지금이나 초등학교생의 글 실력이 얼마나 대단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떤 평범한 재능도 칭찬, 인정, 신뢰와 만나게 되면, 비범한 재능으로 바뀌게 된다.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버팀목, 누군가의 강력한 신뢰는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갖게 한다. 열정은 이미 존재하던 유전에 불을 지피는 것인데,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인정을 통해 그 불씨를 만들 수 있다.

'김 대리, 지난번 보고서 대단하던걸? 디테일한 수치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거 보니까 우리 부서 보고서 왕이야!'

이런 말을 들은 김 대리는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될까?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열정이 나온다. 인정과 신뢰라는 윤활유를 쓰면 가능하다. 열정이 부족한 팀원이 눈에 띄는가? 그의 현재가 아닌 5년 후 잠재가치로 그를 인정해보자.

스토리, 열정을 지속하는 연료

급방 식어버린다면 그건 열정이 아니라 냄비근성일 뿐이다. 초반의 인정과 신뢰가 열정의 화력을 키우는 번개탄이라면, 그 화력이 지속되도록 돕는 연료는 스토리다. 후배들이 상담을 요청해서 듣다보면 '유엔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말하는 친구들이 많다. 이들의 질문에 나는 당차게 거의 똑같은 질문으로 맞받아친다. '그래서? 너 유엔에서 뭐하고 싶은데?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 네가 꿈꾸는 것 말해봐'라고. 하지만 아직 1시간 동안 내게 침을 튀겨가며 자신의 스토리를 풀어낸 후배를 만나지 못했다.

자신의 열정을 뒷받침하는 생생한 스토리가 있는가? 당신을 정말 믿게 만드는 생생한 스토리 말이다. 생존을 위해 1,001일의 매일 밤마다 재미난 스토리를 왕에게 들려주어야 했던 <천일야화>의 주인공 '셰헤라자데'처럼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당신의 생존은 스토리로 결정된다. 한 명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 당신이 했던 좌충우돌 스토리를 꺼내놓아라. 해외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 살 떨리던 순간의 생생한 현장을 묘사해보라.

직원들의 열정은
수치로 계량화된 목표가
아니라, 멋진 스토리를
상상할 때
지속될 수 있다.



이제는 전사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Control)를 넘어 전사적 스토리관리(Total Story Control)가 필요한 시기다. 사람들이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은 단지 제품과 서비스의 질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이 입고, 마시고, 체험하는 것은 감성이며 스토리다. 그렇다면 제품의 설계, 자체구입, 공정설계, 생산, 판매 등 전 단계별로 직원들의 스토리를 공모해 시상하고 공유해보는 것은 어떨까? 직원들의 열정은 수치로 계량화된 목표가 아니라 멋진 스토리를 상상할 때 지속될 수 있다. 우수 사례(Best Practice)가 아니라 우수 스토리(Best Story)를 요구하라. 열정은 지속될 것이다. 🌍